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

김영숙¹, 이경숙^{2*}

¹위덕대학교 간호학과, ²울산대학교 간호학과

Onlin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Kim-Young Sook¹, Lee Kyung Sook^{2*}

¹Departmen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비대면 임상 실습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경북 G시 소재 일 대학교에서 온라인 임상 실습을 경험한 4학년 학생 11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었다. 본 연구의 질문은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은 어떠한가? 이며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실하지 못함', '의구심', '답답함', '힘겨움', '여유로움', '새로운 경험'의 6가지 주제 모음이 확인되어, 학생들은 온라인 실습 기간 동안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환자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실습 운영 시에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실습에 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실습 중 교수와 학생이 소통할 시간을 확보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was a qualitative study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formulate an effective online clinical practice operation pla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 fourth-grade students who experienced online clinical practice at a university located in G city, Gyeongsang buk-d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30, 2020, to December 10, 2020. The question addressed by this study was 'What is the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As a result of the study, 6 thematic collections were identified: 'A lack of sincerity', 'Doubt', 'It is frustrating', 'It is hard', 'Feel relaxed', and 'New experience'. While the subjects had the positive experience of learning new skills and knowledge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they also had the negative experience of not being able to meet the patients in person and receiving immediate feedback. Therefore, in the case of online clin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comfortably engage with the patients and to provide immediate and continuous feedback and explanation by securing time for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during the session.

Keywords : Cincial Practice, Nursing, Online, Qualitative, Sudents

*Corresponding Author : Kyung Sook, Lee(Ulsan Univ.)

email: gslee1@ulsan.ac.kr

Received April 12,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May 21,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 전문직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 학문이므로 간호 교육과정에서의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인간의 잠재적, 실제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1]. 이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 지식과 술기의 적용과정을 배울 뿐 아니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2].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국내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간호 교육에서 임상 실습을 1,000시간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그러나 코로나-19 (COVID -19: Corona 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 -19) 사태는 2020년 전국 대학들의 강의 시작을 늦추게 했고, 강의를 시작한 대학들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부분이 1, 2학기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였다[4-6]. 1년이 지난 2021년 4월 1일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27,773,202명, 사망자 수는 2,794,823명이며, 우리나라 또한 확진자가 매일 매일 급속히 증가하여 누적 확진자 수 103,639명, 사망자 수는 1,735명에 이르는 등[7] 코로나 19의 확산이 지속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2021년 1학기의 강의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8].

연구자가 속한 대학 또한 2020년의 경우 3월 둘째 주에 개강하여 1학기의 모든 이론과 실습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되었고, 2학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임상 실습 과목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021년 1학기 또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되어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임상 실습 교육의 대부분을 실제 현장실습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실습만으로 마무리할 상황까지도 예상된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환자를 직접 접함으로써 획득되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술 습득의 기회 부족은 물론, 간호사에게 필요한 동료나 타 직종과의 협력능력[9] 학습할 기회 또한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실습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비대면 임상 실습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양적 연구로 웹 기반 체험학습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10], 수학습이나 자기효능감에 대한 디지털 학습자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11] 등이

있었고 질적 연구로는 국제 웨비나 후 문화적 인식을 조사한 연구[12]와 온라인 수업 후 학생의 배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13]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양적연구로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습 교육프로그램 적용이 학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14]와 간호 학생의 응급환자 간호 임상 실습 온라인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15]가 있고, 질적 연구로 정신간호학 실습을 중심으로 한 교내실습 경험 연구[16]와 온라인 시뮬레이션 실습에 관한 연구[17]가 있을 뿐 임상 실습의 중단으로 인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임상 실습을 한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 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는 환경에서의 임상 실습이 아닌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대면 임상 실습을 진행한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된 비대면 수업과 실습 동안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어려움 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의 코로나-19사태나 또 다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대면 실습상황을 지속하였을 때 학생들이 비대면 실습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연구주제에 대해 축적된 지식이 미미한 현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실습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비대면 실습의 맥락이 살아있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 경험을 조사하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임상 실습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사고, 감정 및 반응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Colaizzi [18]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임상 실습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의 본질적 의미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Colaizzi[1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개인별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고 대면 실습과 비대면 실습을 모두 경험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3학년 학생의 경우 임상 실습 경험이 없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는 학과 홈페이지 및 단체 대화방 알림 등을 통해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공고나 추천을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한 후, 면담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2.3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질적 연구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질적 연구 활동으로 질적 연구의 감각을 익히고,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연구 중 선행문헌은 분석이 완료된 후 고찰하거나, 정해진 분석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가 지닌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2.4 자료수집

2.4.1 면담 질문 개발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자의 경험을 기초로 온라인 실습의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연구 주 질문은 ‘온라인 실습 경험은 어떠한가?’ 이었다. 부 질문으로는 ‘온라인 실습을 하는 동안 나에게 생긴 일은 무엇인가.’, ‘온라인 실습 중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온라인 실습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이었다.

2.4.2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면담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면담방식, 녹음하며 필사한다는 점, 면담 도중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 모든 자료는 실명이나 소속의 명시 없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점, 녹음 파일도 연구자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유출하지 않겠다는 점 등에 대해 일대일 화상채팅을 통해 설명해주었으며 음성으로 동의를 받았다. 면담 후 참여자의 개인적 정보를 삭제하고 자료에 번호를 매겨 보관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기념

품을 지급하였다.

2.4.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구자가 참여자를 화상채팅을 이용한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였으며, 참여자들에게 면담시간과 방법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채팅을 통해 일대일로 면담하였고 면담 시 학생들이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대화 내용과 행동에 최대한 집중하여 경청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여 면담자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면담 시 나타난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메모하였다. 면담 후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전부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직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면담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새로운 내용이 없어 분석 시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까지 면담을 하였다.

2.5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은 교과별 기존의 임상 실습을 토대로 1학점 교과목의 경우는 1주일(일일 9시간, 총 45시간), 2학점 교과목의 경우 2주일(일일 9시간, 총 90시간)씩 운영되었다.

실습 전 본 대학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교과별로 실습현장에 관한 주요 시설 및 기관한 사진과 파트별 담당자의 업무 설명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을 업로드하여 실습 기간 동안 일별로 각 파트별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목별 관련 핵심기술의 술기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하면서 따라 하도록 하였다. 실습기간 동안은 매일 실시간으로 현장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에 관한 간호중재, 핵심기본간호술, 약물교육에 관한 동영상 강의와 사례발표에 따른 학생상호간의 피드백과 교수의 피드백, 핵심술기발표 및 피드백, 의학용어 평가, 관련퀴즈 등을 화상 미팅을 통해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특강도 과목별로 실시하였다. 또한, 매일 매일의 실습 활동에 대한 실습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실습 마지막 날은 전반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하였다. 2학기 실습의 경우 교과목별로 1학기에 실시한 비대면 프로그램 방식에 V-sim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Table 1).

Table 1. Non-contact practice program

Semester	Subject (credit)	Program content
1st	Nursing administration practice(1)	• Real-time video lecture, Hospital search & discussion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III(2)	• Understanding the role of nurses by department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care of the child I(1)	• Understanding normal and abnormal cases by subject • Test : core skill, medical term • Quiz related to actual content
	Women's health nursing practice I(1)	• case study & feedback, discussion & feedback
Second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care of the child II(1)	• Real-time video lecture, Hospital search & discussion • Understanding the role of nurses by department
	Women's health - nursing practice II(1)	• Understanding normal and abnormal cases by subject • Test : core skill, medical term • Quiz related to actual content
	Comprehensive-clinical practice(2)	• case study & feedback, discussion & feedback • V-Sim

2.6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 중 Colaizzi[18]가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실습 과정 동안에 겪은 경험을 파악하였는데,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더욱 깊이 느끼고자 면담 상황, 표정, 호소 등을 떠올리거나 면담 시 기록한 메모를 동시에 검토하고 녹음된 면담 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기술하였다. 그리고 원자료를 여러 차례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분류하였고, 이 진술들에 구성된 의미를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분석기술로 주제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조직화하여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한 후 주제가 참여자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참여자에게 이 메일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였고, 연구자 편견과 선입견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의 전 과정 동안 판단을 유보하였다.

3. 연구결과

본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에 대해 27개의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이 도출된 의미에서 6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주제군(cluster of themes)으로 조직하였다(Table 2).

Table 2. Theme Cluster and Theme of Non-face-to-fac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me clusters	Themes
A lack of sincerity	Getting lazy
	Doing something else during practice
Doubt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during practice
	Doing practice as performing assignments Anxiety about one's abilities
It is frustrating	Can't cooperate with colleagues
	Inability to fully understand the patient's situation Not receiving feedback on time when needed
It is hard	Difficulty practicing skills due to lack of practical materials
	A daunting task
Feel relaxed	Living a regular life
	Comfort
	Managing one's time freely Reduced economic burden
New experience	No burden about the patient
	Learning the correct procedures and techniques
	If necessary, they can do the tests -they want

제1 주제: 성실하지 못함

하위주제1. 점점 게을러짐

참여자들에게 임상에서의 대면 실습은 새벽에 일어나는 등 사전에 준비할 일들이 많았으며 바쁘고 정신없이 진행되었기에 항상 긴장 속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으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일방적인 전달형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실습은 자신들이 실습을 위해 컴퓨터에 전원을 켜는 일 이외에는 사전에 준비할 것이 없었기에 매사에 서두르지 않게 되었으며, 과제 수행 또한 빨리 해결하기보단 점점 미루다 마감 시간이 압박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임상실습에 비해 비대면 실습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고 준비할게 없어서 게을러졌다고 생각해요. 또한 임상실습 때는 다음날 편하게 쉬기 위해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해두고 나면 다음날 편하게 쉬기 때문에..” (대상자 2)

“예를 들어 6시까지 하라고 하는 과제는 그 시간을 지켜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딱 밤 11시 59분까지가 마감인 과제는 좀 시간을 좀 미뤄서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처음에는 분명히 시간을 지켜서 미리미리 해야지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미뤄서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상자5)

하위주제2. 실습 중 판 짓을 함

참여자들에게 임상 실습은 현장의 특성상 실습 시간 동안 실습에 집중하도록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실습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스스로 따라 하고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실습 시간 동안 자신의 수업 태도나 행동을 교수 등 타인이 볼 수 없고 평가받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실습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집중하기보다는 컴퓨터를 켜둔 채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거나 친구들과 문자나 통화를 하는 등 실습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업에 집중을 한다고 하지만 판 길로 썰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러니까 유혹이 많은 것이 있었어요. 대면 수업은 교수님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폰을 한다거나 간식을 먹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2)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보통은 교수님들이 캡을 쳐두기를 권장하시는데... 캡을 쳐도 보통 노트북을 쓰니까 밑에 폰이 있잖아요 노트북도 pc카톡이 되니까 그런 거를 하는거죠 애들끼리 뭐 SNS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애들이 약속을 잡으니까 후딱 준비하려고 캡 끄고 썰으러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대상자 4)

자주 그런 것은 아는데 출석만 하고 다시 조금 더 자거나 이런 적도 있었어요.” (대상자 7)

하위주제3. 자꾸만 판생각을 함

참여자들은 온라인 실습 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컴퓨터의 모니터만을 보게 되므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대면으로 임상 실습을 할 땐 친구들의 적극적인 실습 참여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적극적으로 실습을 하게 되었지만, 신체적 활동보다는 컴퓨터를 통한 시각적 자극만을 주로 이용한 비대면 실습은 참여자들에게 가끔 멍해지게 하거나 판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꿈을 키면, 처음에는 조금 보다가 중,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판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같이 임상실습을 하면 친구들이 하는 것 보면서 자극이 되어서 나도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나 혼자 컴퓨터보고 하는 실습이다 보니까 멍해지고...(대상자7)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모니터만 보니까 재미도 없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마다 집중하려고 하긴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실습은 역시 현장에 가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대상자 10)

제2주제. 의구심

하위주제1. 과제수행 같은 실습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한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적은 개수의 시나리오, 단편적인 검사나 약물 자료 제공, 몇 가지의 일방적인 질문만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클릭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습이라기보다는 이론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V SIM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딱 그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면 만점을 받는 것이고, 하나라도 잘못하면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실제라면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인데, 너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클릭해서 만점 받을 때 까지 하는 거죠(대상자 5)

“V SIM을 보니까 약도 있고 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약은 너무 적고 검사도... 어떤 시나리오든 검사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V SIM 같은 경우에는 질환에 대한 시나리오가 10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면이랑 비교했을 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1)

“대면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보고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어.. 다양하게.. 물론 V SIM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전 그냥 V SIM할 때 실습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하는 시간. (대상자 8)

하위주제2.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참여자들은 실습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재라면 참여자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것도 피드백 내용만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쉽게 100%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참여자들은 100점을 맞아도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고 이러한 실습이 반복되자 과연 졸업 후 자신이 간호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V SIM을 한 번 하고 나면은 피드백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보고 다시 하면 바로 100점, 100%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정말 다 알아서 100점을 맞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대상자 3)

“비 대면으로 하는 것들은 너무 이론적인 것들이라서... 이렇게 실습하면 ...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못해낼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자 6)

제3주제 답답함

하위주제1. 동료와 협력할 수 없음

참여자들은 실제 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대학 친구들은 물론 타 대학에서 실습 나온 동료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었던 반면, 비대면 상황에서의 실습은 혼자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고, 자신의 실수 경험이나 동료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경험의 기회 또한 갖지 못했다.

“대면 실습을 가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현장 감각을 익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 비대면 실습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11)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통해 배울 수도 있고 같이 실습 나간 동기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실습가면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바이탈을 누가 하자 이런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면 실습이 더 유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상자1)

하위주제2. 환자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

참여자들은 직접 환자를 접할 수 있는 대면 실습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거나 환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과제나 간호계획 수립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실습은 교수가 제시한 사례만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제 환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일정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정답 및 피드백으로만 구성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설정된 질문 이외에는 참여자들이 환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비대면 실습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V SIM 같은 경우에도 환자랑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대화가...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걸 묻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V SIM에서 ‘어디가 아프세요?’하고는, 바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 또 ‘알레르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들었어요.” (대상자 9)

“특히 저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케이스를 했으니까,, 솔직히 실습을 갔으면 진짜 이 사람을 보면서 케이스를 하는 건데 그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케이스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 10)

하위주제3. 필요시 제때 피드백을 받지 못함

참여자들은 실제 임상 실습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실습지도 교수나 실습지도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실습상황에서는 궁금한 것에 대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즉각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바쁜 교수님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질문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또한, 온

라인 실습을 위해 처음 접하게 된 여러 시스템의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겪었고, 프로그램 연결이 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수행한 활동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긴 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피드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대면 실습에서는 바로 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답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카톡으로 하게 되면 계속 질문하기도 눈치 보이기도 하고 교수님도 계속 폰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그런 점이 좀 불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상자 6)

“첫 실습이 아들이었는데 V SIM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로그인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OT자료를 주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동기들과 해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상자 8)

“어려웠던 경험은 ...하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와이파이 파이가 자주 끊기거나 또는 출석체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과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달라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상자 3)

제4주제 힘겨움

하위주제1. 부족한 실습물품으로 술기연습이 어려움
참여자들이 익혀야 하는 간호 술기는 특성상 지속적인 반복연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 물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나 실습 현장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실습이 진행될 관계로 필요 물품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술기 연습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일부 재료들을 재사용하였고, 술기 연습을 위해 필요하나 받지 못한 물품들은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대체할 물건을 찾아야만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술기 연습 후에도 사용한 물품을 처리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참여자들의 술기 연습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물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습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용했던 물품

을 쓰고 또 쓰면서 실습을 하여야했기 때문에 귀찮은 점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처리함이나 바늘과 같은 위험폐기물을 분리할 통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니다. 병원과 실습실보다는 환경이 열악해서 실습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상자 4)

“제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친구는 이어폰을 청진기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관절개관 관리를 할 때는 페트병을 잘라서 쓰는 등 물품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한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상 촬영할 때, 솔직히 말하면 핵심 술기 절차를 익히는 것보다 물품 만드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자 7)

하위주제2. 벽찬 과제

참여자들은 비대면 실습 기간 동안 실제 환자와 접하거나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을 경험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실습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한 답을 하거나 교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매시간 쌓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종일 많이 힘들어하였다.

“과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하루에 다 해내기 힘든 것도 있었어요...
매날매날 과제가 있다 보니까...계속 노트북에 과제 파일이 늘어가고 자필로 써서 해야하는 것들이 많아 손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대상자 10)

“임상 실습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나 9시간 실습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후에 과제를 하거나 지침서 같은 거를 해야 하는데 비대면 실습의 경우는 실습해야 하는 시간을 과제로 대처하다보니까 그 과제를 쳐 내기가 힘들었어요.” (대상자 1)

제 5주제 여유로움

하위주제1.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됨

참여자들은 임상 실습 시 실습 duty에 맞추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온라인 실습은 항상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6시에 끝나도록 정해져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게 되었다. 또한 실습 시간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정해진 점심시간에 맞춰 식사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 비대면 실습 후에 이제 비대면 실습에는 딱 그 스케줄이 9시부터 6시까지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이 ... 9시에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 언젠가부터 눈이 저절로 9시에 떠지고... 중간 중간에 계속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겨 먹고 스케줄 대로 약간 일상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대상자 9)

“대면 실습의 경우 강박관념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올해는 비대면 실습을 하는 순간부터 불면증이 사라져가지고 수면 시간이 확실히 늘었어요.”(대상자 6)

“집에 있으면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한데 비대면 실습을 하는 동안에는 점심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깐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대상자 3)

하위주제2. 편안함

참여자들에게 대면실습은 이른 시간에도 실습복을 착용하고 두발을 정리하는 등 실습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고, 실습 시간에는 온종일 서 있어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던 반면, 온라인 실습은 가정에서 실시됨으로 실습을 위해 실습복을 입거나 두발 정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진행됨으로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비대면 실습하면서 약간... 실습복을 자유롭게 편하게 옷 입고 할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맨날 앉아서 과제 내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되게 편했고, 머리맡 같은 경우도 데이때는 아침 6시 50분까지 병동 올라가야하는데 아침에 머리 감으면 털 말리고 머리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던 말이에요. 털 말린 경우에서 머리맡을 계속 하고 있으면 머리에 냄새도 날 것 같고 되게 그런데 지금은 머리맡을 안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대상자 2)

“대면 실습 때 응급실의 경우 계속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리가 아프고 나중에는 다리가 통통 부을 정도였습니다. 비대면 실습을 하니까 계속 앉아서 있다는 점에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대상자 8)

하위주제 3. 자유로운 시간 활용

참여자들은 대면 실습의 경우 실습을 마치고 난 후에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했으나 비대면 실습의 경우 실습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 실습 시간 이후의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비대면 실습은 그 9시간 실습 안에 케이스 작성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방 케이스를 끝낼 수 있었어요. 실습 후에는 온전하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대상자 8)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하여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빨리 연습해서 촬영하고 영상을 업로드 하고 나면 개인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제가 자취생이다 보니까 집안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대상자 10)

하위주제4.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듦

참여자들은 대면 실습을 할 경우 실습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부분이 실습지 근처에 숙소를 구해야 했고 실습 시간 내의 식사는 주로 실습지나 실습지 근처의 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실습기간의 지출 비용이 많았다. 반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실습의 경우 숙소를 구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식사는 주로 자신이 머무르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습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였다.

“실제 대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칠곡 OO대병원 같은 경우도 집을 구해야 했어야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비대면 실습하니까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대상자 2)

“대면 실습 때는 점심이나 저녁을 사먹어서 돈이 들었는데 비대면 실습은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밥값이 안 들어서 좋았어요.”(대상자 6)

“집이 타지라서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었는데 집에서 실습을 하다보니 교통카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대상자 9)

제 6주제 새로운 경험

하위주제 1. 환자에 대한 부담이 없음

참여자들에게 직접 환자를 대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해야 할 질문을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반면 비대면 실습 시 제공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질문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부담이

없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할 땐 직접 환자를 보고 질문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데... VSIM을 하면은 그 질문 목록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물을 수 있고. 환자한테 직접 묻는 게 아니니까 부담감이 없는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대상자 6)

하위주제2. 정확한 절차와 술기를 익힘

참여자들은 온라인 실습 동안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임상 실습에서는 접하기 힘든 사례를 접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용어와 술기를 익힐 수 있었으며,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간호를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절차를 습득하게 되었다.

“V SIM을 이용하니깐 프로토콜을 알 수 있었던 건 좋은 것 같아요 ... 이 사람이 당뇨환자이고 어떤 상황이면 내가 어떤 순서에 맞춰 간호를 해줘야 하는지...”(대상자 7)

“제가 산과 실습을 못해봤었는데... 이번 여성실습을 하면서 환자가 견갑난산이어가지고 ...그 산모를 돕는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임상에서 견갑난산 자체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V SIM은 그거와 관련된 산과적 용어나 술기들을 익힐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대상자 4)

하위주제3 원하는 검사를 해볼 수 있음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시 환자에 대한 자료는 실습현장에서 제공되는 검사결과만을 참고하여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 실습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의 오더 없이 클릭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검사를 실시해 볼 수가 있어 환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병원에 가면은 검사는 의사 오더에 의해 실시해야 하고 또 ... 검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VSIM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검사를 더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그러면 점수는 100점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대상자 1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성실하지 못함’, ‘의구심’, ‘답답함’, ‘힘겨움’, ‘여유로움’, ‘새로운 경험’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 모음인 ‘성실하지 못함’은 참여자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의 특성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됨으로써 실습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쉬운 수업’으로 지각하며 상대적으로 게을러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실습 시 학생들이 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생과 교수자가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수업 몰입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를[20-21] 고려할 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실습 시 실시간 미팅을 통해 실습상황에 관한 질문이나 발표를 하게 하여 최대한 교수자와 학생이 상호작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주제 모음인 ‘의구심’은 대상자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환자를 접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 속의 상황만 접하다 보니 실습보다는 이론교육을 받는 것으로 느껴졌고, 이런 교육을 받고서 실제 현장에서 자신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안해함을 나타낸다. 이는 Kim, Kim & Lee[16]의 임상 실습 교과와 교내실습 경험 연구에서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움’의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임상 실습 교육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간호대학생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임을[18]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임상 실습이 부득이 비대면 실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으로 반드시 습득해야 할 내용을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실습 진행 시에도 일방적인 내용의 전달 형태가 아닌 주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간호를 적용하도록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현장 적응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주제 모음인 ‘답답함’은 임상 실습을 하는 동안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과 간호 중재를 통하여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력 등 간호사의 자질을 습득하여야 하는

데[23] 온라인 실습으로 실제 환자와 접촉하지 못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였고 교수와도 직접 만나지 못함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이는 '현장경험에 대한 아쉬움'으로 나타난 Kim, Kim & Lee[16]의 연구 결과와 간호대학생이 비대면 이론 수업을 '짜증 나고 아쉬운 수업'으로 지각하고 '소통 부재로 답답함'이 20.95%로 나타난 Kim[19]의 연구, 비대면 수업 시 교수-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소통 부족으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Jung[2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실습의 단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비대면 실습을 계획하고 운영 시 실시간 화상 미팅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과 실습 지도교수의 접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향상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주제 모음인 '힘겨움'은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난 Kim, Kim & Lee[1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코로나 16사태로 인해 임상 실습이 비대면으로 운영됨에 따라 차후 각종 평가[3]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에게 각종 보고서나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핵심 술기 술을 수행한 후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 간호대학생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제 중심의 비대면 실습 교육보다는 임상 실습교과목별 현장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실습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의 과제를 제시하여 간호대학생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핵심 술기 술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술기 별 필요한 물품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다섯 번째 주제 모음인 '여유로움'은 현장의 교대 시간에 맞추지 않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실습이 이루어지므로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임상 실습 시 긴장, 불안, 우울, 무력감 등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는 데[25] 반해 비대면 실습은 편안하고 익숙한 가정에서 실습이 진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19]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비대면 수업의 내용분석에서 편리하고 매력적인 수업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임상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나타난 Kim, Kim & Lee[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세 번째, 네 번째 주제 모음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대상자들은 온라인 실습의 장, 단점을 모

두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제모음인 '새로운 경험'은 대상자들이 비대면 실습 시 제공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임상 실습에서 접하지 못했던 사례를 접해 봄으로써 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졌으며, 컴퓨터 화면을 마주하고 하는 실습이라 부담 없이 프로그램 속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궁금한 점사 또한 자유롭게 해보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라인 실습 교육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대면으로 임상 실습을 실시하더라도 온라인 실습을 병행하여 임상 실습에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실습으로 경험한 것 중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실습한 것과 임상 실습 시 접하지 못한 새로운 사례를 접하고 정확한 절차를 익힐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는 환자와 직접 접할 수 없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실습 시 간호대학생에게 세심하고 정서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Son Song, Won & Lim[26]과 Kim, Kim & Lee[16]의 연구에서 교내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은 부분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지식이 향상된 것이라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임상 실습은 물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실습 운영 시에는 교수의 세심한 배려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실습에 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실습 중 교수와 학생이 소통할 시간을 확보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지속화되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실습 동안 경험한 것을 통해 비대면 실습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온라인 실습의 운영은 자칫 학생들의 과제수행 부담감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과제부여 형태의 실습을 지양하고, 실제 임상 현상이 아닌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실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교내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실습의 전 과정에 교수와 현장 지도자가 함께 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체험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요구충족은 물론 나아가 임상 실습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실습을 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6개의 주제군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비대면 실습 동안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환자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대면 온라인 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습교과목별 특성과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실습프로그램 구성은 일방적인 내용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토론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실습의 전 과정에 교수가 동참하여 사례별 자세한 설명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습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을 달리하여 비교 및 반복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수행 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H. Song,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251-264, May,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2] J. Y. Kang, Y. J. Jeong, K. R. Kong,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8, No1, pp.85-95, Feb. 2018
DOI: <https://doi.org/10.4040/ikan.2018.48.1.85>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for the second half of 2020, Certification Evaluation Procedure and Self-Evaluation Preparation, 2020
- [4] B. J. Lee, Yonsei University decides to run online lectures for the first semester [Internet]. Joong Ang Ilbo, 2020 [cited 2020 April 20],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766236> (accessed Jan. 2, 2021)
- [5] Y. S. Nam, University "2nd Semester Online Class" Student "Take a leave of absence" [Internet]. Joong Ang Ilbo, 2020 [cited 2020 July 13],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822> (accessed Jan. 2, 2021)
- [6] Y. S. Nam, College students go to bars, do they take online classes? The second semester is conducted face-to-face. [Internet]. Joong Ang Ilbo, 2020 [cited 2020 Aug 24],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854878> (accessed Jan. 2, 2021)
- [7] Worldometer.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Internet]. [cited 2021 February 20], Available From: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accessed February 20, 2020)
- [8] M. H. Jeon, Non-face-to-face classes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in confirmed cases... Increased demand for tuition return [Internet]. Joong Ang Ilbo, 2021 [cited 2021 April 4],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4027550> (accessed April 4, 2021)
- [9] S. H. Park, S. O. Park, "Development of program outcome based nursing curriculum guidelin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1, pp.57-118. Mar. 2018
- [10] M. H. Park, M. R. Jeong, M. H. Lee, L. Cullen, "Web-based experiential learning strategies to enhance the evidence-based-practice competenc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91, pp.1-7. Aug. 2020
DOI: <https://doi.org/10.1016/j.nedt.2020.104466>
- [11] D. P. Zwart, O. Noroozi, J. E. H. Van Luit, S. L. Goeia, A. Nieuwenhuis, "Effects of Digital Learning Materials on nursing students' mathematics learning, self-efficacy, and task value in vocational educatio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44, pp.1-9, March. 2020
DOI: <https://doi.org/10.1016/j.nepr.2020.102755>
- [12] D. Y. L. Leung, E. A. Chana, A. K. C. Wong, S. Reisenhofer, M. Stenberg, C. P. Szea, K. H. Laia, E. Cruzd, E. Carlson, "Advancing pedagogy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ultural awareness through internationalization webinars: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93, pp.1-6. Oct. 2020
DOI: <https://doi.org/10.1016/j.nedt.2020.104514>
- [13] S. K. Leners, D. Woodard, "Student perceptions of caring in online baccalaureate education",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27, No.5, p254-259, Sep. 2006
- [14] Y. M. Song, "Effects of a online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on th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counseling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9, pp.271-290, Oct. 2020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20.20.19.271>
- [15] W. G. Kim, J. M Park, C. E. Song,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online clinical practicum program on emergency nursing car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5, No.1, pp.131-142, Jan. 2021
DOI: <https://dx.doi.org/10.21184/jkeia.2021.1.15.1.131>
- [16] H. S. Kim, E. M. Kim, D. S.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in School Practice: Focused o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2, pp.169-178, Feb. 2021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21.22.2.169>
- [17] J. Y. Kang, "Simulat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the on-tact age: A mixed methods case study,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 and clas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8, pp.937-957, Sep. 2020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20.20.18.937>
- [18]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In: Valle RS, King M,(1978),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 48-71. 1978
- [19] S. N. Kim, "The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on-line Lectu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7, pp.477-491, Sep.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7.477>
- [20] E. J. Kim,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or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6, No.3, pp.107-129, Sep. 2015
DOI: <https://doi.org/10.15753/aje.2015.09.16.3.107>
- [21] M. R. Reyes, M. A. Brackett, S. E. Rivers, M. White, P. Salovey, "Classroom emotional climate, student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4, No.3, pp.700-712, Mar. 2012
DOI: <https://doi.org/10.1037/a0027268>
- [22] Chung, S. K. Ch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18 No.1, pp.71-78, Feb. 2011
- [23] A. Löfmark, K. Wikblad, "Facilitating and obstructing factors for development of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a studen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4, No.1, pp.43-50. Apr. 2001
- [24] H. G. Ju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and testing during the Corona 19 pandemic",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23, No.3, pp.392-415, Aug. 2020
- [25] J. S. Yoo, S. J. Ch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10-419, Jun. 2008
DOI: <https://doi.org/10.4040/ikan.2008.38.3.410>
- [26] Y. J. Son, H. S. Song, M. H. Won, S. H. Lim, "Clinical experienc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dult intensive care unit using content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6, pp.353-370, Aug. 2017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17.17.16.353>

김 영 숙(Young-Sook Kim)

[중신회원]



- 1994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석사)
- 2009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4월 ~ 현재 :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학교보건, 청소년건강, 건강증진

이 경 숙(Kyoung-Sook Lee)

[정회원]



- 2003년 7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5년 2월 : 동의과학대학교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스트레스